

이라크 추가파병

2004. 2. 9(月)

국 방 부

목 차

- 총괄 현황 1
- 전투병 위주로 편성된 전투부대 파병? 9
- 파병 당위성 : 명분없는 전쟁에의 파병? 11
- 파견 동의안 : 요건 未충족? 12
- 파견 지역 : 키르쿠크는 불안정? 14
- 파병부대의 안전 : 차별화, 親韓化 15
- 치안 유지활동 : 이라크 軍·警으로 가능 16
- 민사작전 : 이라크 재건지원 활동 17
- 파병규모 : 책임지역 담당 가능 18
- 파병시기 : 17대 국회에서 처리? 19

총괄 현황

□ 추진 경과

- 미국, 한국군 추가파병 요청(9.4)
 - 美 국방부 부차관보, 「미래 韓·美동맹 정책구상」 4차 회의시
- 정부, 여론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파병 결정(10.18)
 - * 각계 지도층 의견 수렴, 좌담회, 토론회 등
- 파병방안 결정을 위한 현지 조사/협의
 - 정부 합동조사단(2회), 국회조사단 현지조사(11.18~26) 활동
 - 對美협의(3회), 정치권 의견 수렴
- 정부, 추가파병案 결정/발표(12.17)
- 對美 군사실무협의(12.17~22)

- 파병 지역 / 시기 : 키르쿠크 / 4월말
- 지휘 통제 : CJTF-7사령부 직속, 한국군 독자적 임무수행
- 군수 지원
 - 지원분야 : 수송차량, 주둔지 시설, 유류, 급수, 유선통신망 등
 - 긍정적 검토 : 쿠웨이트~책임지역 이동간 병력수송용 항공기(C-130) 지원
 - 현지정세, 지형, 주둔여건, 미측 지원사항 확인 후 소요인원/장비 편성 조정
- 정부차원의 추가협의 필요 : 헬기 1개 대대, 험비(61대)

- 국무회의 의결/대통령 재가(12.23), 동의안 국회제출(12.24)
- 파병부대 「창설 기획단」 편성('04.1.12) : 사단장 등 67명
- 「군수지원 조사단」 파견('04.1.11~19)
 - * 현지 미군과 협조, 군수보급 및 예산소요 파악

□ 이라크 일반현황

○ 이라크 주권 이양계획

- 과도정부 구성 / CPA 해체('04.6월), 新정부 구성 위한 총선('05.12월)
- * 과도정부 구성 이후에도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동맹군 주둔 예상

○ 미군/동맹군 전개현황 : 총 36개국 138,000여명

(미군 115,000, 동맹군 23,000)

- * 미군 부대 교대 : '04.1~4월, 現 4개 사단 → 3개 사단

○ 이라크 군·경 17만명 목표, 현재 10만여명 배치/양성 중

○ 저항세력의 적대행위는 지속되나, 후세인 체포이후 감소 추세

구 분	'03. 10월	'03. 11월	'03. 12월	'04. 1월
적대행위발생건수	809	823	480	474
미군·동맹군사망자 수	32	73	20	25

○ 정부수립 可視化에 따른 종족·정파간 갈등 표출

- 시아파, 권력이양 이전 총선 실시 주장
 - * 미측, 기간내 헌법초안 마련 및 유권자 명부작성 불가로 수용곤란 입장
- 시아파 對 수니파, 아랍 對 쿠르드족 등 종족간 갈등 노정

○ 국제사회 동향

- 일본, 육자대 선발대 파견(1.20) / 본대 파견명령 하달(1.26)
- 유엔, UN직원들의 이라크 복귀 검토위한 치안팀 파견(1.26)

□ 키르쿠크 현황

- 경기도 크기, 인구 약 95만명의 성장 잠재력이 큰 요충지
 - 이라크 석유의 40% 매장, 비옥한 땅, 고속도로·철도·공항 등 발달
 - 상·하수도, 전기, 위생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대부분 노후화 또는 未작동, 주민의 약 40% 실업자
- 이라크 치안유지 전력 7,000여명 활동중
 - 경찰 5,100명, 민방위군 2,400명, 시설경비대 350명
 - 금년 9월까지 新이라크軍 1개 여단 (3개 대대 2,600여명) 배치 예정
- 쿠르드계(40%), 아랍계(35%), 터키/아시리아계(25%) 거주, 쿠르드족 對 아랍/터키계 갈등 표출
- 최근 미군에 대한 적대행위는 발생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치안상황은 안정적

구 분	'03. 10월	11월	12월	'04. 1월	2.1~7일
적대행위 수	23	36	11	16	3
미군사망자 수	2	1	0	3	0

- 키르쿠크 州지사 및 주요 부족장, '한국군 파병 환영' 표명

- 한국은 우리에게 친구이므로 이라크 재건과 평화를 위해 파병되는 한국군을 크게 환영함.
(부족장 연합회 회장)
- 어려운 시점에 한국의 적극적 지원에 감사함.
(키르쿠크 주지사 및 부족장들)

□ 파병 계획

○ 임 무 : 책임지역 담당, 재건 지원

- 전후복구 지원 및 구호활동, 이라크 자치행정기구 기능발휘 지원, 친한화 활동 등

* 친한화 활동 : 직업훈련/어린이 학교 운영, 기호물자 지원, 불우시설 위문, 계몽운동 전개 등

- 현지 치안은 이라크 군·경찰이 담당하고

우리 軍은 양성 교육 / 지원

○ 부대편성 : 3,600여명(서희·제마부대 포함)

- 사·여단 사령부 / 직할대 : 1,200여명

* 사단직할대 : 군수지원단, 통신, 경비, 화학, 헌병, 정보

* 여단직할대 : 수송, 통신, 폭발물처리반

- 재건지원 : 1,600여명

- 사단 직할의 서희(공병)·제마(의무)부대 : 600여명

- 민사여단 예하 4개 재건지원대대 : 1,000여명

- 경계병력 : 800여명

- 사단사령부 경비중대 : 100여명

- 민사여단 예하 경비대대 / 장갑중대 : 700여명

※ 융통성 있는 임무 수행 및 아군 피해 최소화 위해 정예병력으로 편성

○ 시기 / 지역 : 2004.4월말 / 키르쿠크州

○ 지휘 관계 : 우리 합동참모의장 지휘,

현지 사령관에 의한 작전 운용

※ 한국군, 독자적인 지휘체계로 키르쿠크 지역 전담

□ 파병 당위성

- UN 안보리결의에 따른 파병이며, 우리의 주권적 결정
 - 결의안 1511호 :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파병과 이라크 재건지원 결정
 - UN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세계경제 12위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평화유지 의무 적극 이행
 - * 다국적군의 대표이며 오랜 혈맹국가인 미국의 요청
- 중동지역 평화·안정 및 이라크 국가재건에 기여
 - 이라크, 피폐한 自國 재건활동에 한국이 추가파병 등을 통해 적극 참여해 주기를 희망, 인도적 차원의 수용 필요
 - 중동지역의 평화·안정에 기여, 중동국가와 우호관계 증진 계기
- 중동지역의 전략자원 확보 및 국익 증진
 - 단기적으로 전후 복구사업 참여로 경제적 實益 확보
 - * 미국, 한국을 이라크 재건(550억불규모)의 핵심그룹으로 선정
 - 중·장기적으로 석유화학·통신사업 등 고부가가치 사업 진출 가능
 - 향후 안정적 원유 도입선 확보
- 미래 韓·美동맹 강화에 기여
 - 파병시 한국에 대한 신뢰감 증진 및 미국내 反韓감정 해소로 미래 한·미 동맹관계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
- 연합작전 / 원거리 해외파병 경험 축적으로 強軍 육성 및 軍 발전의 계기

□ 4월말 파병 필요성

○ 對美 관계

- 국가간 약속 준수

- * 對美협의회 미측에서는 미군부대 교대를 고려 2월 파병을 요구했으나 우리 案을 관철시켜 4월말로 조정

- 한·미간 합의한 파병시점 未준수시 한·미관계에 악영향 우려

○ 對국민 여론 / 국익

- 파병 지연시 정부의 정책추진 능력에 대한 불신 및 비난 예상

- * 정부-여당간 총선을 겨냥한 2중전략으로 인식

- 파병시기 상실시 파병효과 감소, 국제사회의 신뢰 추락

- 이라크 재건사업에의 참여기회 대폭 감소

- * 추가파병에 대한 불신감 증폭시,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배제 예상

※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보다 목소리 높은 일부에 의한 국가정책 변경/나쁜 선례 우려

○ 對이라크

- 예정된 파병 시기 준수로 한국군 파병을 환영하는 많은 이라크인의 기대에 부응 필요

- * 키르쿠크 주정부 인사 및 부족장, 한국군 파병 환영 및 키르쿠크 재건·복구에 강한 기대감 피력

- 파병 지연시 우리 파병의지 퇴색으로 비쳐 한국(군)에 대한 불신 초래

□ 파병 준비

○ 「범정부 파병지원 추진위원회」 운영

- 파병관련 유관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
- 국방차관을 위원장, 각 부처 차관보급을 위원으로 편성

○ 부대 편성 / 인원 선발

- 파병부대 「창설기획단」 편성 : 사단장 등 67명
- 軍內 인원 선발 공고(1.27일)
- 부대 명칭 선정
 - 일반 명칭 : “이라크 평화·재건지원부대”
 - 상징 명칭 : “자이툰(올리브) 부대”

○ 아랍어 자원 확보

- 아랍어 통역요원 교육 : 46명(1.12~4.13, 12주)
- 민간인 아랍어 자원을 계약직 군무원으로 선발(41명)
 - 선발 : 2~3월 중순, - 임용 : 4월 1일

○ 타국군과 차별화된 장비·물자 준비

- 사막복 : 상이한 색상/무늬, 국가표지 및 아랍어 명찰 부착
- 장 비 : 위장 도색, 국가표지 및 아랍어 표어(“평화 재건”) 부착

○ 소요 예산(잠정) : 2,296억원

- 군수지원 조사('04.1월) 결과 고려, 2월중 확정 예정

○ 해외파견근무수당

- 계급별 기준액

구분	대령	중령	소령	대위	중위	상사	중사	병
금액(불)	2,340	2,143	1,965	1,786	1,751	1,750	1,536	1,340

- 수당 = 기준액 + 등급액(임무수행환경 + 위험도), 등급 검토중

○ 전사자 보상금 현실화

- 8천3백만 → 2.2억원
 - * 사망보상금 1.7억 + 재외수당 0.5억 = 2.2억(연금포함시 3.4억)
- '04년 1월 29일부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 공포

□ 향후 추진계획

- 부대 편성 : 국회 파병동의 직후
- 현지협조단 파견 : 2월 중순
* 사단장/참모, 국방부·합참 관계관 등 11명
- 파병전 교육훈련 : 7~8주
* 자대교육 : 2주, 소집교육 : 5~6주
- 장비·물자 구매 및 조달 : 2월초~3월초
- 장비·물자 선적/출항 : 3월말
- 선발대 파병 : 3월말
- 아랍어 통역 민간인 선발 : 4월초
- 본대 파병 / 임무 수행 : 4월말

1. 전투병 위주로 편성된 전투부대 파병?

□ 성공적 임무수행 위한 부대 편성

- 파병부대의 임무는 일정 책임지역을 담당하면서,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것임.
- 국방부는 현지 실정과 이에 따른 요구사항, 우리 軍의 임무, 능력, 과거 파병경험을 고려하여 임무를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.
- 파병부대는 아직도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충분한 자체 방호 및 생존능력을 갖추어야 함.
- 또한 실업율이 40~50%나 되는 실정을 고려시 공병부대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현지 주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며, 이를 위한 우리 軍의 능력도 제한됨.

□ 재건지원 임무 수행

- 파병부대는 키르쿠크州를 전담하여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함.
- 파병부대 재건지원 임무는 민사여단 예하 재건지원대대와 공병 및 의무부대가 주로 담당함
 - 재건지원대대는 전후복구 지원 및 구호활동, 자치행정기구 기능 발휘 지원임무를 수행하며 親韓化 활동을 병행 추진
 - 공병부대는 전후복구 지원활동과 병행하여 기술학교 운영 등 親韓化 활동을 전개
 - 의무부대는 현지인 및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료임무를 수행

□ 생존성 보장위한 자체방호 능력 보강

- 재건지원대대는 지역내 자치행정기구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융통성있게 대민지원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, 업무 수행간 부대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므로
 - 평시부터 재건지원 및 민사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완벽하게 훈련되어 있으며
 - 동티모르에서 4년간 인도적 지원 및 재건지원활동 경험을 축적하였고
 - 간부 위주로 구성된 정예부대인 특전사 병력으로 편성하였음
- 경비대대는 대민접촉이 상대적으로 적고, 비교적 단순한 경계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잘 훈련된 병사들로 구성된 특공부대와 해병대로 편성하였음.

□ 지휘 및 지원 임무

- 사단 및 여단사령부는 CJTF-7 사령부 및 이라크내 자치행정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지원하며, 재건지원 임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하부대를 지휘·통제함.
- 사단 및 여단의 직할대는 군수지원단·통신·헌병·화학·정보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사단내 모든 부대의 군수보급, 정비·시설, 의료 등 제반 지원 임무를 수행함.

□ 완벽한 임무 수행과 생존성

- 99년 10월~03년 10월까지 동티모르에 파병되었던 상륙수부대는 특전사 위주로 편성된 부대이었으며, 이들은 동티모르 재건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“다국적군의 王”이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음
- 상당한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인명손실을 최소화한 가운데 부여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정예부대로 편성되어야 할 것임.

2. 파병 당위성 : 명분없는 전쟁에의 파병?

□ 이라크 재건을 위한 파병

- 추가파병은 미국의 對이라크 전쟁에의 참여가 아닌 전쟁이후 고통 받고 있는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불안한 정치·경제 상황의 조기 안정화 및 국가재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,
- UN 안보리 결의 1511호에 의거하여 다국적군을 대표하며 오랜 혈맹국가인 미국의 요청에 의한 인도적 차원의 파견이고,
- 세계 경제 12위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UN 회원국의 일원으로서의 도리와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.

□ 세계 35개 국가의 파병

- 미국 외에 세계 35개국 23,000여명이 파병되어 이라크에서 활동 중이며
- 일본은 육상·해상·항공자위대 1,000여명 파병을 결정하고 전개중이며
* 선발대파견('03.12월) ~ 본대 파견 완료('04.3월)
- 독일은 파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

□ 파병을 통한 우리의 국익 증진

- 이라크의 조기 안정화에 기여함으로써 중동지역의 평화·안정은 물론 중동국가들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
- 단기적으로는 한국기업의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참여기회가 증대되며
- 중·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원유도입선의 확보 및 석유 화학·정유·IT사업 등 고부가가치 사업의 중동 진출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임.

3. 정부 파견동의안 : 요건 未충족?

-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해외파견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, 주무부처인 국방부장관에게 파병부대의 편성 등 세부파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임.
- 정부는 파견동의안에 임무, 부대편성, 파견지역, 예산 등과 관련하여 국회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.
- 임무관련 : “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”고 명시하였으며,
- 부대 편성 관련 : “재건지원 및 민사작전부대, 자체 경계부대 및 이를 지휘하고 지원할 사단사령부 및 직할대로 구성” 한다고 명시하였음.
 - 구체적인 부대편성은 현지 여건하에서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 전문가적인 판단으로 발전되어야 할 사안임.
- 파견지역 관련 : “미국과 다국적군 통합지휘부와 협의하여 이라크 및 주변국가로 하되, 부대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함”이라고 명시하였음.

- 동의안에 파견지역을 키르쿠크라고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파견이후 상황 변화 또는 책임지역을 조정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것임.
 - 지금까지의 모든 파견동의안에도 부대 활동의 융통성 보장을 위해 특정지역을 명시하지 않았음.
 - 실제로 파병부대는 범정부적 지원이 집중될 키르쿠크지역에서 운용될 것이며, 부대 운용 지역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될 것임.
- 예산 관련 : “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며, 對美협의 및 현지 협조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”으로 명시하였음.
- 세부 예산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동맹군 사령부 및 현지 부대와의 세부협조, 군수지원 소요 판단, 세부 부대 편성 등이 완결되지 못했기 때문임.
 - 추가파견 예산안이 구체화되면 기획예산처의 주관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며, 사용 결과는 추후 국회 예산결산 심의시 상세히 보고될 것임.
- 추가파견동의안의 내용은 국회동의안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함.

4. 파견 지역 : 키르쿠크는 불안정?

- 주민들의 분포는 후세인 정권 반대세력인 쿠르드족이 40%를 차지하고 있어 동맹군에 우호적인 분위기이나 쿠르드족의 분리독립 요구로 인해 아랍/터어키계와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음.
- 최근 저항세력이 은신하고 있고, 희생제 축제기간(2.1~3일)중 미군에 대한 적대행위가 발생하였으나,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되며, 전반적인 치안상황은 타지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임.
- 지난 1월14일 일부 언론에서 ‘한국군 군수조사단을 겨냥한 로켓트 공격이 있었으며, 국방부가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였다’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.
- 또한 계획대로 금년 3월까지 이라크 치안유지전력이 12,000여명으로 증강되고, 6월까지의 과도정부가 구성되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.

5. 파병부대의 안전 : 차별화, 親韓化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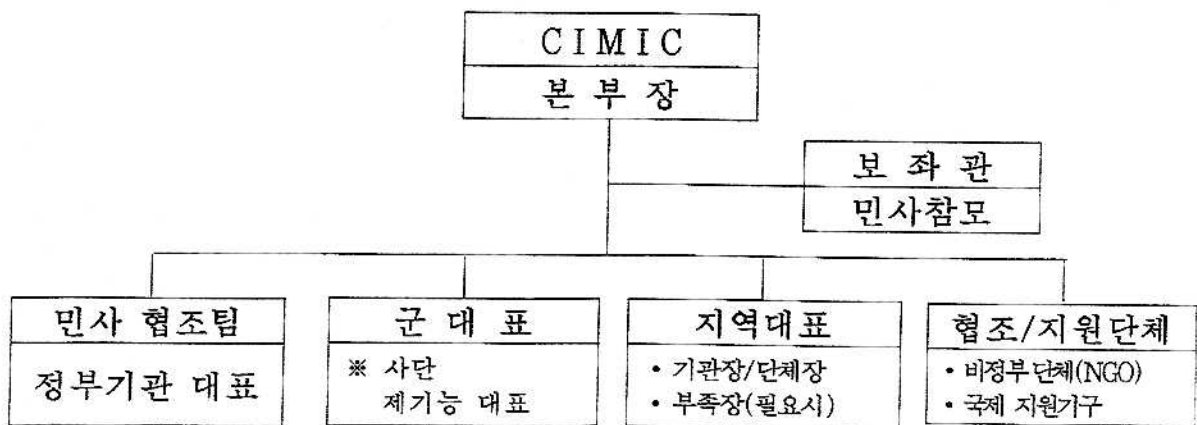
- 파견지역의 치안유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복안은 양성된 이라크 軍·警을 통해 치안유지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, 파병부대는 이를 지원토록 하는 것임.
- 아울러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대세력의 공격양상과 작전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음.
 - 차량을 방탄화하고 방탄복을 개선하여 방호능력을 보장하였으며
 - 장비와 복장이 미군과 차별화 되도록 하고,
 - 현지의 관습, 문화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파병전 교육을 강화하며,
 - 대민지원, 기술학교 운용 등 적극적인 親韓化 활동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,
 - 정부 차원의 親韓化 대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것임.
- 현지 임무수행간에는
 - 이라크 원조공여금(2억달러)을 파견기간 중에 파견지역에 집중 투자토록 하고
 - 학교, 급수시설 등 현지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등 인도적 지원 사업을 통한 親韓化 활동을 강화하며
 - 지역내 재건지원 활동간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.

6. 치안 유지활동 : 이라크 軍·警으로 가능?

- 책임지역을 담당하는 것은 책임지역내 모든 작전을 포괄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로서 치안질서 유지도 그중 일부이나,
 - 정부의 복안은 양성된 이라크 군·경찰이 치안을 전담토록 하고,
 - 우리 군은 이라크 군·경찰이 효과적으로 치안유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.
- 키르쿠크州的 치안유지 병력으로 현재 7,000여명이 활동중에 있으며, 9월까지 新이라크군 1개여단 2,600여명이 배치될 예정임.
- 따라서 우리軍이 파병될 시점인 4월말 경에는 7,000여명 이상의 이라크 치안유지 병력이 가용하게 되므로 이들을 통해 상당수준의 치안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.
- 다만, 적대세력의 공격이나 위해행위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
 - 자위권 차원에서 방어적인 군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전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,
 - 무력사용의 범위는 적대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할 것임.
- 또한 현지 임무수행간 발생 가능한 우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파병부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 유형별 작전지침을 제정하고, 파병전 교육훈련을 통해 이를 철저히 숙달시킬 예정임.

7. 민사작전 : 이라크 재건지원 활동

- 이라크 재건지원 활동은 민사작전의 개념으로 수행되며, 민사작전이란 군부대와 행정기관 및 주민간의 상호관계를 다루는 제반활동을 일컫는 것임.
- 이라크 추가파병 부대의 민사작전은
 - 치안질서 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이라크 군·경의 양성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고,
 - 긴급시설의 복구 또는 건설을 지원하며,
 - 현지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구호 활동과 함께 親韓化활동을 수행하는 것임.
- 파병부대의 효율적인 민사작전 수행을 위하여 사단장 예하에 우리 정부의 외교부, KOICA, KOTRA 등 유관기관 대표로 구성된 민사협조팀을 포함하여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사협조본부(CIMIC)를 운영할 계획임.



- 외교부, KOICA, KOTRA 등

8. 파견 규모 : 책임지역 담당 가능?

- 우리군의 파병규모는 현재 키르쿠크를 담당하고 있는 美173여단의 3천여명보다 600여명이 많은 3,600여명 수준임.
- 우리 군과 미군을 비교할 때 첨단무기 면에서 우리 군이 뒤지는 것은 사실이나,
 - 미군은 적대세력 소탕 위주의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지만
 - 우리 軍이 파병되면 치안유지 임무는 지역내의 이라크 군·경찰이 전담하고, 우리군은 이들을 양성/지원하면서 재건지원 위주로 임무를 수행하므로
- 책임지역인 키르쿠크를 담당하여 부여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.

9. 파병시기 : 17대 국회에서 처리?

- 지난해 9월 미국이 최초로 파병을 제의해 왔으며, 수차례에 걸친 對美협의를 통해 파견시기를 4월말로 합의하였음.
- 對美협의를 미측은 부대교대를 이유로 2월 파병을 제의해 왔으나 우리 국회의 동의안 심의 및 軍의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4월말로 조정하였음
- 파견동의안 처리를 17대 국회로 넘기게 되면 국제사회 및 미국과 이라크 국민에게 약속한 4월 말 파견시기를 지키지 못해 국제사회 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, 한·미 관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
 - 한국군 파병을 환영하는 많은 이라크인들에게 우리의 파병의지가 퇴색된 것으로 비추어져 한국(군)을 불신하게 될 것임.
 - 또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추진능력을 의심하고 비난할 것임.
- 따라서 국가안보와 국익을 감안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파견동의안을 처리함으로써, 국방부가 파병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임.